

## 11. 백제로부터의 대규모 이주: 야마도 왕국의 성격

### Motivational Episode

고사기 호무다(應神/品陀/本牟多) 편을 본다.

백제 근초고왕(百濟國主照古王)은 탁소라는 대장장이와, 서소라는 남 중국 오나라 풍의 의복(吳服)을 잘 만드는 재단공 등, 두 명의 기술자를 보냈다. 당시에는 쇠붙이를 다루는 대장간 일을, 한반도를 지칭하는 카라(韓)의 카누치(鍛)라고 불렀다. 뒤를 이어 술을 빚을 줄 아는(知釀酒人) 인번(仁番/須須許理)이라는 사람이 도래했다(參渡來). 인번은 스스고리 라고도 불렀는데, 그는 도착 하자마자 엄청나게 맛이 있는 술을 빚어(釀大御酒) 호무다에게 바쳤다.

호무다는 생전처음으로 것처럼 훌륭한 술 맛을 보게 되자, 크게 취하도록 많이 마셨다(字羅宜是所獻之大御酒/字羅下三字以音). 술에 취한 호무다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손에 잡고 있던 몽둥이로 길 한 가운데 있는 커다란 돌을 내려치니까, 그 돌이 호무다를 피해 달아나 버렸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이 얘기로부터 또 “단단한 돌도 술주정뱅이는 피 한다”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 백제로부터 대규모 도래(度來, 渡來)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야마도 왕국이 수립된 직후에 백제 사람들이 야마도 지역으로 대량 이주해 온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sup>1</sup> 동경 대학교의 이시다(石田英一郎) 교수는 “야마도 조정에 의해 일본이 통일된 직후에 최대 규모의 이민 물결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만일 야마도 조정이 한국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규모 이민의 유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했다.<sup>2</sup>

일본서기를 읽어보면, 백제 왕실과 야마도 왕실이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일 것

<sup>1</sup> “야마도”는 기나이(畿內)의 5개 구니(國) 중 하나로, 오늘 날의 나라현(奈良縣)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그 지역을 倭 혹은 大倭라 쓰고 (대) 야마도라 읽었는데, 737년부터 大和로 고쳐 쓰기 시작했다. 읽기는 전이나 마찬가지로 야마도라 읽는다. 야마도 평야는 남북으로 30킬로, 동서로 15킬로 정도가 되는 지역이다.

<sup>2</sup> 이시다(1974: 85) 인용. 도래(度來, 渡來)라는 표현은 고사기(712년 편찬), 일본서기(720년 편찬), 풍토기(712-20년 편찬) 등에 기록된 특이한 표현이다.

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815년에 편찬 완료된 신찬 성씨록을 보면, 황족 중에서 으뜸가는 마히또(眞人) 씨족을 백제 왕족의 후손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야마도 조정에는 백제 왕족 가운데 누군가가 거의 항상 체류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기록들은, 4세기 말에 일본열도에 야마도 왕국을 세운 것은 백제 사람들이고, 천황족의 뿌리는 백제 왕실이라는 이론과 부합한다.

3세기 말에 편찬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일본열도에 말이 없다고 기록을 했다. 그런데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말이 공식적으로 일본열도에 도착하는 사실을 기록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오오진(應神) 15년인 404년에, 백제 왕이 아직기(阿直岐) 편에 두 마리의 순한 말을 보내왔다. 고사기는 암, 수 한 마리씩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다. 아직기는 경전도 읽을 줄 알았으므로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오오진이 아직기에게 백제에 자신보다 더 학식이 뛰어난 인물이 있느냐고 묻자, 아직기는 왕인(王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인은 405년에 백제에서 건너왔으며, 태자는 왕인으로부터 많은 경전을 배웠다. 아직기는 아직사(阿直史)의 시조가 되었으며, 왕인은 서수(書首, 文首)의 시조가 되었다. 백제 왕은 대장장이와 의복을 만드는 재단공을 보냈으며, 또 술 담글 줄 아는 사람도 보냈다.<sup>3</sup>

일본서기는, 오오진 7년인 396년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시켜 저수지를 만든 다음 한인지(韓人池)라 이름 지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고사기를 보면 신라에서 온 사람들을 시켜 저수지를 만들고서 “백제지(百濟池)”라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일본서기는 백제왕이 403년에 진모진이라는 재봉사를 보내왔는데, 그녀가 바로 구메 재봉사(衣縫)의 시조라고 말 한다.<sup>4</sup>

<sup>3</sup>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牝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 此阿知吉師者 阿直史等之祖... 又科賜百濟國若有賢人者貢上 故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一卷...此和邇吉師者文首等祖...又貢上手人韓鍛名卓素 亦吳服西素二人也 又...及知釀酒人 名仁番亦名須須許理等參渡來也 (K: 248)

應神 十五年 百濟王遣阿直伎 貢良馬二匹...阿直伎亦能讀經典 卽太子...師焉 於是天皇問阿直伎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仁者 是秀也 時遣...荒田別...於百濟 仍徵王仁也 其阿直伎者 阿直伎史之始祖也...十六年...王仁來之 卽太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 (NI: 371-373)

<sup>4</sup> 亦新羅人參渡來 是以...命引率 爲役之堤池而 作百濟池 (K: 248)

應神 七年 高麗人百濟人任那人新羅人 並來朝 時命...領諸韓人等作池 因以 名池號韓人池 (NI: 367)

일본서기에는, 하다(秦) 씨족의 시조가 되는 궁월군(弓月君)이 403년(오오진 14년)에 120개 현의 사람들을 이끌고 “백제로부터” 야마도에 도착하였으며, 409년(오오진 20년)에는 야마도 아야(倭漢) 씨족의 시조가 되는 아지 사주(阿知使主)가 17개 현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sup>5</sup>

일본서기에 의하면, 유랴쿠 7년(463)에 “백제에서” 각종 기술자들이 또 한차례 대규모로 건너 왔는데, 그 중에는 안장을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비단을 짜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이 도착한 기술자들은 오오진 때에 도래한 (야마도 아야 씨족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마끼 아야(今來漢, 新漢)라고 불렀으며, 기존의 야마도 아야(倭漢) 씨족이 관할토록 했다.<sup>6</sup> “이마끼”는 이제 방금 새로 건너왔다는 뜻이다. 백제 사람들의 이와 같은 대규모 이주는, 야마도 왕국의 역사에서 한국이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속일본기는, 야마도 왕국의 중심부인 다케치(高市 타카이치) 지역이 아지 사주가 인솔해 온 아야 씨족으로 넘쳐나 다른 씨족은 열에 한 두 명도 안되었다고 말한다.<sup>7</sup>

應神 十四年 百濟王貢縫衣工女 曰眞毛津 是今來目衣縫之始祖也 (NI: 371)

<sup>5</sup> 亦百濟國主照古王...亦貢...又貢...又秦造之祖 漢直之祖...等參渡來也 (K: 248)

應神 十四年 弓月君自百濟來歸...領己國之人夫百廿縣...然因新羅人之拒 皆留加羅國 十六年...乃率弓月之人夫 與囊津彦共來焉...廿年...倭漢直祖阿知使主...並率己之黨類十七縣而來歸焉 (NI: 371- 75) 도중에 (가라 지역에서) 신라인들의 방해로, 궁월군이 인솔해 온 사람들의 실제 야마도 도착 연도는 3년 후인 405년이 된다.

<sup>6</sup> 雄略 七年 西漢才伎歡因知利...取道於百濟...集聚百濟所貢今來才伎...天皇...命東漢直 以新漢陶部...鞍部...畫部...錦部...譯語...等 遷居于...或本云 吉備臣...還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宏人部 (NI: 475-477)

[7대왕] 하쓰세 치세 때, 카후치 아야(西漢) 씨족인 관인치리의 제안에 따라, 백제 조정에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청했었다. 당시 백제 조정이 새로 보내준 이마끼 기술자(今來才伎)들을 이마끼 아야(新漢) 혹은 아야 기술자(漢手人)라 불렀다. 이들을 처음에는 야마도의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게 했다가, 후에 야마도 아야(東漢) 씨족의 아타히 쓰카 에게 명해, 모모하라와 마카미하라 마을에 옮겨 살게 했다. 모모하라와 마카미하라는 모두 오늘날의 나라현 다케치(다카이치)군 아스카 촌에 위치했었다.

<sup>7</sup> 阿智使主...率十七縣人夫歸化 詔高市郡檜前村而居焉 凡高市郡內者 檜前忌寸及十七縣人夫滿地而居 他姓者十而一二焉 (SN4: 380)

신찬 성씨록에 의하면, 아지 사주는 오오진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마끼(今來) 군을 만들었는데, 후에 그 이름이 다케치 군으로 바뀌었으며, 이마끼 지역이 아야 씨족으로 너무 붐비게 되어, 아지 사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결국, 셋츠, 아후미, 하리마 등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배치 된 마을의 촌장은 거의 모두 아야 씨족 사람들이 담당했다. 하리마 풍토기에는 아야 씨족이 재배치되는 사례만이 아니라, 하다 씨족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sup>8</sup>

하리마 풍토기는 “오오진 때에 백제로부터 도래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나라에서 하던 식으로 (흙을 파, 掘城處) 성을 쌓아 올리고 살았기 때문에 키무레(城牟禮)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어떤 지명의 유래를 밝힌다.<sup>9</sup> 한국 고어에서는 산을 “모” 또는 “뫼”라 했다. 따라서 “무레”는 산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게 성(城)을 키(己, 只)라고 불렀다.<sup>10</sup> 그러므로 여기서 “키-무레”는 “성-산”이라는 뜻으로, 백제 사람들이 (몽촌 토성 모양) 흙으로 축조하는 “산성”을 말하는 것 같다.

신찬 성씨록에 의하면, 하다 씨족(秦氏)들이 (오오진의 아들) 닌도쿠(仁德) 왕 때에 여러 현에 분산되어 거주 하면서 양잠을 하여 많은 비단을 조정에 바쳤고, 5세기 후반 유랴쿠(雄略) 왕 때에는 이 하다 씨족의 규모가 총 18,670명에 달해 92개의 베(部)를 이루었다.<sup>11</sup> 이들 하다(秦)와 야마도 아야(漢) 두 씨족은, 백제의 부(部) 제도를 본 따서, 야마도 조정의 재정 출납 등 온갖 행정 기능을 맡아보게 되었고, 그 덕으로 신생 야마도 조정은 처음부터 국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sup>8</sup> 阿智王 譽田天皇御世...七姓漢人等歸化...仍賜大和國檜隈郡鄉居之焉...飛鳥村主...錦部村主...鞍作村主 播磨村主 漢人村主 今來村主...等是其後也 爾時阿智王奏 建今來郡 後改號高市郡 而人衆巨多 居地隘狹 更分置諸國 攝津...近江播磨...等 漢人村主是也 (SS: 358)  
少宅里 本名漢部里 所以號漢部者 漢人居之此村 故以爲名所以後改曰少宅者...祖父 娶少宅秦公之女 (F: 304) 신찬 성씨록은, 아스까 촌주(村主), 누가다 촌주, 구라쓰쿠리 촌주, 하리마 촌주, 아야 촌주, 이마끼 촌주 등이 모두 아야 씨족의 후예들이라 한다.

<sup>9</sup> 播磨國風土記 神前郡 多駝里...品太天皇 巡行之時...云墓 又云城牟禮山 一云 掘城處者 品太天皇御俗 參度來百濟人等 隨有俗 造城居之 (F: 330)

<sup>10</sup> 이기문, 1972: 37-38 참조.

<sup>11</sup> 大泊瀬稚武天皇御世...秦民九十二部一萬八千六百七十人 (SS: 307)  
仁德 御世 以百二十七縣秦氏 分置諸郡 即使養蠶織絹貢之 (SS: 279)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했었는데, 그로부터 389년이 지난 371년에 근초고왕이 도읍을 한성(漢城)으로 옮겼다 한다. 위례성이나 한성이나 모두 한산(漢山)과 한수(漢水)의 인근 지역이다. “한성” 백제는, 그로부터 105년이 지난 후 (475년에 장수왕이 왕도 한성을 포위하고 개로왕을 잡아 죽였을 때), 문주왕이 웅천으로 천도를 하면서 끝이 났다. 5세기 초, “한성” 백제에서 건너온 아지 사주와 그 백성들을 한자로 “漢人” 이라고 기록한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어째서 “한 나라, 물 이름, 은하수” 등을 뜻하는 한(漢)이라는 글자를 “아야”라고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긴 어째서 진 나라 진(秦) 자를 “하다”라고 읽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 신찬 성씨록의 도래인 분류 방식

삼국사기 399년 조와 광개토 대왕 비문 400년 조의 기록들은, 바로 이 시기에 백제로부터 일본열도로 일련의 대규모 이주가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게 하는 사료가 된다.<sup>12</sup> 삼국사기에 의하면, 399년에 아신왕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크게 병마를 징발하니, 많은 백성들이 괴로워 신라 쪽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호구가 크게 줄어 들었다 한다. 아마 이 달아난 사람들이 몇 년 후에 궁월군과 아지 사주를 따라 야마도로 이주한 120개 현과 17개 현의 백제 사람들인 것 같다. 광개토왕 비는 고구려 군이 400년에 왜적의 배후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은 즉시 투항했고, 이어 신라성을 공격하자 왜구가 크게 무너졌는데, 성안의 대부분 사람들이 왜인을 따라가기를 거부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거나 내용상으로 보아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사기-일본서기의 기록과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403년, 궁월군이 백제로부터 건너와 호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이 120개 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신라 사람들이 가로 막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이 지금 가라국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호무다는 가즈라키 소츠비코를 가라로 보내 신라 인들을 물리치고 궁월군이 인솔해 오던 사람들을 데려 오도록 했다. 하지만, 군사를 인솔하고 한국으로 떠난 가즈라키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405년 말에야 모두 함께 야마도

<sup>12</sup> 阿莘王 八年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S2: 45-46)

廣開土王碑文 十年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城 [ ]城 倭寇大潰 城內十九盡拒隨倭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sup>13</sup>

일본 삼대실록의 세이와(淸和) 조오간 4년(862) 조는, 사카우에 라는 씨족이 아지 사주의 후예인데, 이 아지사주의 무리들은 “백제”로부터 건너왔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일본 삼대실록은 우다(r.887-97) 천황의 명에 의해 편찬된 세이와-요오제이-고오코오 3대 29년 간(858-87)의 역사 기록이다.<sup>14</sup>

이상의 기록들은 왕인을 비롯해서 하다 씨족과 아야 씨족이 모두 백제에서 건너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신찬 성씨록 만은, 왕인 뿐만 아니라, 하다 씨족과 아야 씨족도 모두 중국(漢)에서 도래한 씨족으로 분류를 해서 한반도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현대 일본 사학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sup>15</sup>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이유를 캐 본다.

신찬 성씨록이 편찬되고 있었던 8세기 말과 9세기 초라는 시대는, 야마도 왕국 전체가 아직도 중국의 문물을 동경하며 열심히 견당사를 파견하고 있던 시기였다. 한반도의 백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아직 중국의 모든 것이 부럽고, 중국과의 역사적 연관성이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할 때였다.<sup>16</sup>

<sup>13</sup> 應神 十四年 春二月 弓月君自百濟來歸 因以奏之曰 臣領己國之人夫百二十縣而歸化然因新羅人之拒 皆留加羅國 爰遣葛城襲津彦 而召弓月之人夫 於加羅 然經三年 而襲津彦不來焉 (NI: 371) 應神 十六年 遣...於加羅 仍授精兵詔之曰 襲津彦久之不還 必由新羅之拒而滯之 汝等 急往之擊新羅 披其道路 於是木菟宿禰等進精兵 莅于新羅之境 新羅王愕之服其罪 乃率弓月之人夫 與襲津彦共來焉 (NI: 373)

<sup>14</sup> 阿智使主之黨類 自百濟國來歸也 日本三代實錄 (日本六國史 韓國關係 記事原文: 216-217).

<sup>15</sup> 일본 고대사에서는 소위 덴표(天乎) 문화 시대라고 부르는 기간(749-57)이 있다. 당시 주요 씨족들의 계보가 심각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위 천평승보(天乎勝寶) 말기에 와서, 주요 씨족들의 시조(出自)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저명한 학자들이 소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이 절반도 끝나기 전에, 조정이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되어, 이들 학자들은 해산되었다. 그 후 799년, 간무의 명령을 받고, 그의 아들 만다(萬多親王 783-830)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성씨록의 편찬 작업이 재개되어, 사가(嵯峨 809-23) 재위 기간 중인 815년에 드디어 완성이 된 것이다. 이 성씨록에는, 경기(京畿) 즉 당시의 수도(京)와 야마도, 셋츠, 카하치, 야마시로, 이즈미 등 기나이(畿內) 지역에 거주하는 1,182개의 주요 씨족의 조상(出自)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1부에는 천황, 황자의 후손이라는 335개 황족들(皇別)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다. 제2부에는 천신과 자신의 후예라는 신족들(神別)의 조상이, 그리고 제3부에는 중국과 한국 사람의 조상을 가졌다는 변족(諸藩)들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다.

<sup>16</sup> 야마도 조정은 600년부터 614년까지 견수사를 보냈고, 630년부터 838년까지 견당사를 파견했다.

신찬 성씨록에서 제번(諸蕃)이라고 부르는 “공식적” 도래인 씨족들의 기록은, 중국의 한(漢)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씨족부터 시작을 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의 순서로 기록을 했다. 한 나라 에서 건너왔다는 씨족들의 출자(出自)는 진 시황제(秦始皇帝), 한 고황제(漢高皇帝), 후한 광무제(光武帝), 령제(靈帝), 헌제(憲帝), 위 무제(魏武帝), 등 엄청난 존재들이다. 그런데 신찬 성씨록에 기록된 (수도과 주변 5개 구니의) 1,182개의 지배 씨족들의 조상들을 검토 해 보면, (天孫降臨 원칙에 따라) 문서상으로 완전하게 “토착화”시켜놓은 백제계 황족 씨족들을 제외하고서도, 너무나 백제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편찬자들은, 인위적으로 왜곡을 해서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지 사주, 궁월군, 왕인 같이 분명하게 백제에서 건너왔다고 기록된 사람들을 중국에서 온 것으로 억지 재 분류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신찬 성씨록 말대로라면, 야마도 왕국의 핵심 본거지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로 넘쳐 났었다는 얘기가 된다.

신찬 성씨록에 실린 1,182개 씨족 중, 335개가 고오베쓰(高麗), 403개가 신베쓰(神別), 328개가 쇼한(諸蕃), 116개가 기타(未定雜姓) 씨족으로 분류되어 있다. 403개의 신별은, 373개의 천신(天神) 씨족과 30개의 땅의 신(地祇) 씨족으로 나뉘어 있다.

아주 내놓고 도래 씨족이라고 분류를 한 328개의 제번 씨족의 조상은, 104개가 백제, 42개가 고구려, 9개가 신라, 10개가 가야, 163개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도래했다는 씨족 중에는, 왕인, 궁월군, 아지 사주 등의 후손을 포함하는 54개의 백제 계통의 씨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잡으면, 제번 중, 백제에서 도래한 씨족이 158개로 증가되고, 중국에서 도래한 씨족은 109개로 감소된다. 116개의 기타 미정 잡성 씨족 중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출신이 (각각 18, 7, 8, 1) 모두 34개가 포함 되어있다. 우리가, 야마도 왕국 초창기에 도래한 백제 왕족의 후손을 고오베쓰(高麗)로 간주하고, 그들과 함께 도래한 비(非) 왕족 지배층의 후손을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천신 씨족의 신베쓰(神別)로 본다면, 신찬 성씨록에 실린 1,182개의 지배 씨족 중, 한국 도래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씨족은, (신별 중 토착 세력인) 땅의 신(地祇) 씨족 30개, 중국 출자 제번 씨족 109개, 비(非) 한국계 미정 잡성 씨 82개 등, 모두 합해 전체의 20%도 안 되는 221개 씨족에 불과한 것이다.

## 백제 왕실과 야마도 왕실간의 근친 관계

일본서기를 읽어보면, 백제 왕실과 야마도 왕실이 아주 가까운 친족관계일 것

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예컨대, 야마도 조정에는 백제 왕족 가운데 누군가가 거의 항상 체류를 하고 있었다. 백제 아신왕(r.392-405)의 태자인 전지는, 397년부터 405년까지, 오오진과 함께 야마도에 살았다. 그는 405년에 부왕이 서거하자 백제로 돌아와, 그 뒤를 이어 전지왕(r.405-20)이 되었다. 전지왕은 자신의 누이동생 신제도를 야마도에 보내, 오오진을 모시게 했다는 기록도 나온다.<sup>17</sup>

오오진의 뒤를 이은 닌토쿠왕 때, 백제 왕자 주(酒)가 야마도 조정에 와서 매를 길들이고 닌토쿠와 함께 매 사냥을 다니기도 했다. 개로왕(蓋鹵王 r.455-75) 때에는 백제 조정에서 유락쿠의 왕비 감으로 모니(慕尼) 부인의 딸을 보냈는데, 그녀가 부정한 짓을 해서 그만 화형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개로왕은 그의 동생 곤지(昆支)를 야마도 조정에 보내 유락쿠를 돕도록 하였다.<sup>18</sup>

일본서기에 의하면, 개로왕은 자신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던 여인을 동생 곤지에게 주어 보내면서, 그녀가 도중에 해산을 하면 아기를 즉시 돌려보내라고 말했다. 그 여인은 큐슈 부근 섬에서 아기를 낳았고, 곤지는 즉시 사마(한국어로 섬 혹은 시엄)라는 이름의 그 아기를 배에 태워 개로왕에게 보냈다. 일본서기는 그 해가 461년이라고 기록을 했다. 그 아기가 후에 무녕왕(武寧王 r.501-23)이 되었으며, 무녕 왕릉은 1971년에 공주에서 발견 되었다. 발굴된 지식에는 무녕왕의 이름이 사마 이었으며, 523년에 62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무녕왕의 관은 남부 일본에서만 자라는 금송(金松)으로 만들었다. 금송이 자라면 보통 지름이 1.2미터, 높이가 36미터에 달한다.

백제의 삼근왕(r.477-79)이 479년에 죽자, 곤지의 둘째 아들이 백제로 돌아와 동성왕(r.479-501)이 되었다. 일본서기는, 유락쿠가 백제로 떠나는 곤지의 아들의 얼굴과

<sup>17</sup> 應神 八年 百濟記云...阿花王...遣王子直支 (NI: 367)

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或云直支...阿莘在位第三年立爲太子 六年出質於倭國 十四年王薨...太子還國...國人...迎腆支卽位 (S2: 46)

應神 十六年 是歲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NI: 373)

應神 三十九年 百濟直支王 遣其妹新齊都媛以令仕 爰...率七婦女 而來歸焉 (NI: 379)

<sup>18</sup> 仁德 卅一年 百濟王之族...爰酒君來之...卅三年...捕異鳥...百濟俗號此鳥曰俱知 是今時鷹也 乃授酒君令養馴 未幾時而得馴...居腕上獻于天皇...幸...遊獵...乃放鷹令捕 (NI: 409)

雄略 二年 百濟池津媛 違天皇將幸 姪於...天皇大怒...以火燒死 百濟新撰云...蓋鹵王立...天皇遣...來索女郎 百濟莊飾慕尼夫人女 貢進於天皇 (NI: 463)

雄略 五年 百濟...蓋鹵王...告其弟...昆支...曰 汝宜往日本以事天皇 (NI: 471)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작별을 아쉬워하는 장면을 묘사한다.<sup>19</sup> 백제 무녕왕은 505년에 사아(斯我)라는 왕자를 보내 야마도 조정에서 일을 돕도록 했다. 597년에는 위덕왕이 아좌(阿佐) 태자를 보냈다. 일본서기는, 의자왕의 아들 풍장(豊尙)이 631년에 건너왔다고 기록했다.<sup>20</sup>

일본서기는 덴무 왕을 “아마 노 누나하라 오끼 노 마히또”라고 부른다. 신찬 성씨록의 서문에는 마히또(真人)가 황족 중에서 으뜸가는 씨족이기 때문에, 수도 지역의 마히또 씨족들을 제1권 황별(皇別) 첫 머리에 수록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기록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모든 마히또 씨족을 백제 왕족의 후손으로 간주 할 수 있다.<sup>21</sup>

성씨록 제1권 맨 첫 머리에 실려 있는 4개의 마히또 황족들은 호무다(오오진) 왕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5번째는 케이타이(繼體) 왕의 후손, 6번에서 12번까지는 비다쓰(敏達) 왕의 후손, 13번에서 20번까지의 마히또 씨족들은 백제 친왕(百濟親王)의 후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12번째 씨족, 즉 백제 친왕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씨족들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마히또 황족은, 비다쓰 왕의 후손 백제왕(敏達孫百濟王)의 자손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환언하면, (6번부터 12번까지의) “비다쓰 왕의 후손”은 “백제 왕의 자손”과 동일하다는 말이 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비다쓰 왕은 케이타이 왕을 계승한 킨메이(欽明) 왕의 둘째 아들이었으며, 케이타이 왕은 또 호무다의 5세 손이 된다. 결국 첫 번째에서 20번째까지의 모든 마히또 씨족들이 “백제 왕”의 자손들이었다고 신찬 성씨록이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호무다 계통의 일본 황족이 모두 백제 왕족에서 유래했음을 의미한다.<sup>22</sup>

<sup>19</sup> 雄略廿三年 百濟文斤王薨 天王 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勅喚內裏 親撫頭面 誠勅懇 勲 使王其國...是爲東城王 (NI: 497-499)

<sup>20</sup> 武烈七年 百濟王遣斯我君...百濟國主之骨族 (NII: 17)

推古五年 百濟王遣王子阿佐 (NII: 175) 舒明三年 百濟王義慈入王子豐章 (NII: 229)

<sup>21</sup> 枝別之宗 特立之祖...**真人是皇別之上氏也** 并集京畿以爲一卷 附皇別首 (SS: 146-147)

<sup>22</sup> 左京皇別 息長真人 出自譽田天皇 諡應...路真人 出自諡**敏達**皇子...王也 守山真人 路真人同祖 ...親王 之後也 甘南 備真人...路真人同祖...大原真人出自諡**敏達孫百濟王**也 島根真人 大原真人同祖 **百濟親王**之後也...清原真人 桑田真人同祖 **百濟親王**之後也 (SS: 149-152)

일본서기에 의하면, 센쿠와 왕은 케이타이 왕의 둘째 아들, 요오메이 왕은 킨메이 왕의 넷째 아들,

660년, 백제의 수도가 나당 연합군에게 함락된 후, 야마도에서 귀국한 왕자 풍장은 복신과 함께 주유성에서 항전을 계속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당시 사이메이(r.655-61) 여왕과 태자 덴지(r.662-71)는, 큐슈까지 나와서, 백제 구원작전을 진두 지휘 했다. 663년, 야마도 조정은 구원병 만 여명을 보냈는데, 이들은 백촌강(白村江) 전투에서 궤멸되었고, 주유성(州柔城, 周留城)은 당 군에게 함락되었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서로들 다음과 같이 말을 주고받았다: 주유가 함락됐구나. 이전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오늘로서 백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곳을, 어찌 다시 찾아 가 볼 수 있을 것인가?”<sup>23</sup> 일본서기는, 얼핏 보면 마치 주유성 함락 직후에 백제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은 것같이 기록을 해 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 보아도 그 내용은 야마도 사람들이 후에 주유성이 함락되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했을 말이다.

####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마음에 와 닿는 얘기들

일본서기는 백제의 지배층과 야마도 왕족 사이가 상당히 가까운 친족 관계였음을 분명히 느끼게 해 주는 수많은 감동적 일화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 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야마도 왕국과 신라-고구려와의 관계 역시 기록을 하지만, 그런 기록들은 눈에 띄게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다. 야마도 조정이나 백제 조정은 모두, 백제와 야마도 왕국과의 관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고 말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신공왕후는 그녀의 아들 호무다에게 “우리가 백제와 친교를 맺고 있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생존시와 마찬가지로 우의를 한층 더 돈독히 하여 이 우정의 결속을 영원토록 지속시켜야

---

쇼메이 왕은 비다쓰 왕의 손자, 덴지 왕은 쇼메이 왕의 맏아들, 덴무 왕은 덴지 왕의 동생이다. 그런데 21번째부터 44번째까지의 나머지 24개 마히또 황족은, 오오진, 케이타이, 센쿠와, 비다쓰, 요오메이, 쇼메이, 덴지, 덴무 왕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신찬 성씨록 첫머리에 실려 있는 전체 44개 황족들이 모두 마히또(眞人)인 동시에, 백제왕의 자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오오진-케이타이 계통의 핵심적인 일본 황족 전체가 백제 왕족의 후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sup>23</sup> 天智 二年九月 百濟州柔城 始降於唐 是時 國人相謂之曰 州柔降矣...百濟之名 絶于今日 丘墓之所 豈能復往 (NII: 361)

한다”고 당부를 한다. 다른 한편, 백제의 근초고왕(r.346-75)은 그의 손자인 침류왕(r.384-5)에게 “지금 우리가 통교를 하는 바다 건너 동쪽의 나라는 하늘이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다. 하늘의 은덕으로 우리 나라의 기초가 영원토록 공고 해졌으니, 너는 우리 토산물들을 그 나라에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우의를 계속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를 한다.<sup>24</sup>

백제 아신왕(阿莘王 r.392-405)은 397년에 태자 전지(腆支)를 야마도 왕국으로 보냈다.<sup>25</sup> 삼국사기에 의하면, 아신왕은 402년에 사신을 야마도 왕국에 보내 큰 구슬을 구하였고, 403년에 야마도 왕국에서 사자가 오니 왕이 이를 맞아 위로함이 특히 후하였다.<sup>26</sup> 일본서기는 오오진(호무다) 16년 조에, “백제 아신왕이 죽었다. 천황은 태자 전지를 불러 ‘왕자는 즉시 귀국해서 왕위를 계승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 하면서, 한국 동쪽 땅을 하사하였다”고 말한다. 한반도로부터 건너와, 이미 야마도 왕국의 지배자가 된 오오진이 정식으로 백제의 강역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인 것 같다.<sup>27</sup>

삼국사기에 의하면, 야마도 조정이 409년에 사신을 보내면서 야광주를 전하니 전지 왕(r.405-20)은 그 사신을 정중하게 대접하였다.<sup>28</sup>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 전지왕이 자신의 여동생을 보내 호무다를 모시도록 했다. 신제도(新齊都)는 7명의 시녀들을 거

<sup>24</sup> 神功 攝政五十一年 百濟王亦 遣久氐...於是皇太后語太子...曰 朕所交親百濟國者 是天所致 非 由人故...如朕存時 敦加恩惠...今復厚結好 永寵賞之(NI: 357-9)

神功 攝政五十二年 久氐等...曰...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 海東貴國 是天所啓 是以垂天恩...由是國基永 固 汝當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絕 (NI: 359)

<sup>25</sup>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六年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S2: 45)

應神 八年 百濟記云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NI: 367)

<sup>26</sup>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十一年 遣使倭國求大珠 十二年 倭國使者至 王迎勞之特厚 (S2: 46)

<sup>27</sup> 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或云直支 梁書名映...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 送既至 國界...國人殺磔禮 迎腆支即位 (S2: 46)

應神 十六年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 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NI: 373)

<sup>28</sup> 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五年 倭國遣使送夜明珠 王優禮待之 (S2: 46)

느리고 왔다.”<sup>29</sup> 삼국사기에 의하면, 전지왕은 418년에 사신을 야마도 조정에 보내면서 비단 10필을 전했다.<sup>30</sup>

일본서기(N1: 293-4)에 의하면, 백제왕의 손자인 주군(酒君)이 야마도 조정에 와서 고로시의 집에 머무르며 매를 길들여 닌토쿠(仁德)와 함께 사냥을 나간다: “낮설게 보이는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왕은 주군을 불러서 그게 무슨 새인지 물었다. 주군은 ‘이런 새는 백제에 아주 많으며, 길을 들일 수 있는데, 백제 사람들은 흔히 이 새를 구치(매)라 부른다’고 대답하였다. 왕은 그 매를 주군에게 주어 먹이를 주고 훈련을 시키도록 했다. 주군은 얼마 안 있어 그 매를 훈련시켜, 발에는 부드러운 가죽 끈을 매고, 꼬지에는 작은 방울을 매달았다. 주군은 매를 자기 팔뚝 위에 얹혀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쳤다. 그날로 왕과 주군은 모즈의 들판으로 나가 함께 매 사냥을 했다.”<sup>31</sup> 모즈는 후에 닌토쿠가 묻힌 곳이다. 삼국사기는 428년에 야마도 왕국 사신이 50명의 종자들과 함께 도착했다고 기록한다.<sup>32</sup>

일본서기는 백제신찬(百濟新撰)을 인용한다: “개로(r.455-75)가 왕위에 올랐다. 유랴쿠(雄略)는 여랑 하나를 골라서 보내 줄 것을 청했다. 백제는 모니 부인의 딸인 적계 여랑을 간택해서 왕에게 보냈다. 왕은 그녀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녀는 경솔하게도 다데라는 자와 정을 통했다. 왕은 크게 노해 그녀를 불 태워 죽여버렸다. 흥보를 전해 듣고, (461년) 개로왕은 그의 동생 곤지를 야마도에 보내 천왕(天王)을 모시고 형왕(兄王)으로서의 우호관계가 한층 돈독해 지도록 했다(以脩兄 王之好).”<sup>33</sup>

<sup>29</sup> 應神 三十九年 百濟直支王遣其妹新齊都媛以令仕 爰新齊都媛率七婦女 而來歸焉 (NI: 379)

<sup>30</sup> 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十四年 遣使倭國 送白綿十匹 (S2: 46)

<sup>31</sup> 仁德 四十一年 遣...於百濟...是時...爰酒君來之...四十三年...捕異鳥...天皇召酒君...酒君對曰 此鳥之類 多在 百濟 得馴而從人 亦捷飛之掠諸鳥 百濟俗號此鳥曰俱知 是今時鷺也 乃授酒君令養馴 未幾時而得馴 酒君則以韋 緝著其足 以小鈴著 其尾居腕上 獻于天皇 是日幸百舌鳥野而 遊獵 時雌雉多起 乃放鷺令捕 忽獲數十雉 (NI: 409)

仁德 六十七年 幸河內石津原以 定陵地 始築陵...故號其處曰百舌鳥耳原者 (NI: 415)

<sup>32</sup> 三國史記 百濟本紀 毗有王 二年 倭國使至 從者五十人 (S2: 46)

<sup>33</sup> 雄略 二年 百濟池津媛違天皇將幸 淫於石川橋 天皇大怒...置假殿上 以火燒死 百濟新撰云 己巳年 蓋鹵王立 天皇遣...來索女郎 百濟莊飾慕尼夫人女曰適稽女郎 貢進於 天皇 (NI: 463)

일본서기는, 백제 삼근왕(r.477-9)이 죽었을 때, 유랴쿠가 “곤지의 다섯 아들 중 둘째이며, 나이는 어렸지만 매우 똑똑했던 말다(未多) 왕자를 궁으로 불렀다. 유랴쿠는 친히 말다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백제로 돌아가 왕위를 계승하라 했다. 그가 동성왕(東城王 r.479-501)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sup>34</sup>

### 백제 성왕은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을 찬양하면서 긴메이 왕에게 불상을 보낸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의 성왕(聖明王 r.523-54)과 야마도 왕국의 긴메이왕은 마치 오늘날 친한 친구들이 e-메일을 주고 받듯이 빈번하게 서신 왕래를 하였다. 545년, “백제는 높이가 6장이나 되는 불상을 만든 다음, ‘6장 높이의 불상을 만든다는 것은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다. 이제 삼가 만들었으니, 이 공덕의 힘으로 원컨대 긴메이 왕께서 높은 덕을 얻고, 왕께서 소유한 땅에 축복이 내리며, 천하의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원문을 써 넣었다. 552년, “성명왕은 석가 불 금동상 한 개, 몇 개의 사찰 깃발과 덮개, 몇 권의 경론 등을 전하면서 예배의 공덕을 크게 찬양하였다: 이 불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법입니다. 이 법은 선행에 대한 인과응보로서 능히 무한한 복과 두터운 덕을 줄 수 있고, 수행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 최고의 이상인 부처님의 정각의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긴메이는 이 말을 듣고 나자 크게 기뻐 벌떡 일어나며 신하들의 견해를 물었다. 소가 이나메 대신이 대답했다: “서쪽 나라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들 모시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야마도 만 모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sup>35</sup>

---

雄略 五年 百濟加須利君 蓋鹵王也 飛聞池津媛之所燔殺適稽 女郎也 而籌議曰... 乃告其弟 軍君 昆支也 曰汝宜往日本 以事天皇...軍君入京 既而有五子 百濟新撰云 辛丑年 蓋鹵王遣 弟昆支君 向大倭 侍天王 以脩兄王之好也 (NI: 471)

<sup>34</sup> 雄略 二十三年 百濟文斤王薨 天王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 幼年聰明 勅喚內裏 親撫頭面 誠勅 懇懃 使王其國...并遣筑紫國軍士五百人 衛送於國 是爲東城王 (NI: 499-501)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昆支之子 (S2: 60)

<sup>35</sup> 欽明 六年 遣...使于百濟...百濟造丈六佛像 製願文曰 蓋聞 造丈六佛 功德甚大 今敬造 以此功德 願天皇獲勝善之德 天皇所用彌移居國 俱蒙福祐 又願普天之下一切衆生 皆蒙解脫 故造之矣 (NII: 93-95) 十三年 百濟聖明王 更名聖王遣...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 幡蓋若干

554년, 성왕이 전쟁터에서 신라 병사들 손에 죽었다. 그의 아들 여창(위덕왕 r.554-98)은 셋길로 겨우 빠져 나왔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당시 신라 장수들은 백제가 탈진 상태인 것을 알고, 아예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을 했다. 그러자, 한 장수가 말했다: “야마도 왕은 가야[연맹]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나라를 여러 번 질책을 했는데, 이제 백제 관가(官家)를 아주 멀해 버린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획은 취소되었다.<sup>36</sup>

계속해서 일본서기를 본다: “여창은 ... 왕자 혜[威德王의 동생, 후에 혜王 r.598-99]를 보내 성왕이 적에게 살해되었다는 비보를 전했다. 긴메이는 이 비보를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소가 대신을 나루터에 보내 왕자 혜를 맞아 위문케 했다. 소가 대신이 왕자 혜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렇게도 슬픔이 간절합니까? 인간의 정을 가진 사람치고 왕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가 대신은 계속 말한다: “옛날, 유락쿠왕 때[r.463-79], 당신 나라는 고구려[장수왕]에 의해 핍박을 당하여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락쿠 왕은 가무 쓰카사 가미(神祇伯)에게, 신(神祇)으로부터 계책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하후리(祝者)가 신의 말씀(託神語)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창건한 신(建邦之神)에게, 멸망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임금한테 가서 구원을 해 주라고 경건하게 청하면, 그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시조 호무다] 신께 [백제에 가서] 구원을 해줄 것을 청했더니, [백제] 왕조의 기초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야마도 땅에] 나라를 창건한 신(建邦神)은,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초목이 서로 말을 할 때, 하늘[백제]로부터 내려와 나라를 세운 신입니다. 제가 듣기에 당신 나라에서는 그 [호무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제 지난 날의 과오를 참회 하고, 신궁을 수리하여 신령께 제사를 올리면 나라가 융성할

---

經論若干卷 別表讚流通禮拜功德云 是法於諸法中最爲殊勝...此法能生無量...天皇聞已 歡喜踊躍 詔使者云 朕從昔來未曾得聞如 是微妙之法...蘇我大臣稻目宿禰奏曰 西蕃諸國一皆禮之 豐秋日本 豈獨背也 (NII: 101-103)

<sup>36</sup> 欽明 十五年 餘昌謀伐新羅... 築...塞 其父明王憂慮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斷道擊破...斬首而殺...餘昌遂見圍繞... 餘昌及諸將等 得從間道逃歸... 於是 新羅將等 俱知百濟疲盡 遂欲謀滅無餘 有一將云 不可 日本天皇以任那事屢責吾國 況復謀滅 百濟官家 必招後患 故止之 (NII: 111-3)

것입니다.”<sup>37</sup>

### 구다라 강변에 왕궁을 짓고, 구다라 궁에서 서거를 하고

일본서기에 의하면, 비다쓰왕은 572년에 야마도 지역의 구다라 오오이(百濟 大井) 라는 곳에 왕궁을 지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한자로 백제라 쓰고 모두 “구다라”라고 읽는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조메이(舒明) 왕은 639년에 대규모의 궁전과 사찰을 축조하도록 명했다. 궁전은 구다라 강(百濟川) 가에 자리를 잡았고, 구다라 강변에는 구중 탑이 세워졌다. 641년, 조메이 왕은 구다라 궁(百濟宮)에서 서거했다. 입관한 후 장사를 지낼 때까지 궁 북쪽에 안치를 했는데, 이를 구다라 대빈(百濟 大殯)이라 불렀다.<sup>38</sup>

일본서기는 고구려에서 승려가 왔을 때는 “귀화(歸化)”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에 바로 이어 백제에서 승려가 왔을 때는 시종일관 그냥 왔다고 “올 래”(到來) 자를 썼다: 595년에 “고구려 승려 혜자(慧慈)가 야마도로 귀화하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같은 해에 백제 승려 혜충(慧聰)이 왔다. 이 두 승려는 불법을 널리 전파하였으며, 모두 3보(佛法僧)의 동량이 되었다;” 602년에 “백제 승려 관륙(觀勒)이 와서 역법, 천문지리 및 둔갑

<sup>37</sup> Aston(N2: 77)은 「쯔쇼우 주석자가 이 대목에서 세이토키 라는 책으로부터 “간무(桓武 r.781-806) 치세 때 우리와 한국[백제?]은 표기법[기록?]이 동일했다. 왕은 이 말을 싫어하여 모두 불태워버렸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문장을 하나 인용했다.」는 사실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 시킨다. 기타바다케 치카후사(北畠親房 1293-1354)는 자신이 1343 년에 쓴 역사 책(神皇正統記)의 오오진 조에다 「“옛날 일본 사람들은 삼한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말을 한 책들은 모두 간무 때 불태워졌다”고 기록을 했었다. 應神 . . . 昔日本ハ三韓ト同種ナリト云事ノアリシカノ書ヲ桓武ノ御代ニヤキステラレシナリ. 六地藏寺本 神皇正統記 (Tokyo: Kyuko), p. 28.

欽明 十六年 百濟王子餘昌 遣王子惠 ...曰聖明王爲賊見殺 天皇聞而 傷恨迺 遣遣使者 迎津慰問 於是... 俄而蘇我臣問訊曰...何痛之酷何悲之哀 凡在含情 誰不傷悼...蘇我卿曰 昔在天皇大泊瀨之世 汝國爲高麗所逼 危甚累卵 於是 天皇命神祇伯 敬受策於 神祇祝者 迺託神語報曰 屈請建邦之神 往救將亡之主 必當國家 謐靖人 物又安 由是 請神往救 所以社稷安寧 原夫建邦神者 天地割 判之代 草木言語之時 自天降來 造立國家之神也 頃聞 汝國輟 而不祀 方今悛悔前過 修理神宮 奉祭神靈 國可昌盛 汝當莫忘 (NII: 115-7)

<sup>38</sup> 敏達元年 宮于百濟大井 (NII: 133)

舒明 十一年 詔曰 今年造作大 宮及大寺 則以百濟川側爲宮處...於百濟川側 建九重塔 十二年 徙於百濟宮 十三年 天皇崩于百 濟宮...殯於宮北 是謂百濟大殯 (NII: 233-5)



술에 관한 책을 바쳤다. ... 승룡과 운충 등, 두 명의 고구려 승려가 함께 귀화하였다.”<sup>39</sup>

### 수 나라 유학생으로 선발된 아야 씨족 사람들(漢人)

608년, 야마도 조정은 7명의 학생과 1명의 통역을, 귀국하는 수 나라 사신 일행에 딸려, 수 나라 조정으로 보냈다. Sansom(1931: 37-8)은 “성덕(聖德) 태자가 선발한 몇 명의 학자들이 해외 유학을 하기 위해 수 나라로 갔다. 그들은 모두 귀국해서 중요한 임무의 선구자가 되었고, 특히 일부는 대화 개신(大化改新 645-50)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모두 한번 써 본다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서기는 그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학생 야마도 아야(倭漢直) 씨족의 아타헤 후쿠인, 나라 씨족의 오사(譯語 통역) 예묘우, 다가무꾸 아야(漢人) 씨족의 구로마로, 이마끼 아야(新漢) 씨족의 오오쿠니, 학문승 이마끼 아야 씨족의 히후미, 미나부찌 아야 씨족의 쇼우안, 시가 아야 씨족의 예운, 이마끼 아야 씨족의 고사이” 등 8명이었다. Sansom(1931: 38)은 “이름과 칭호를 보건대, 그들은 모두 귀화한 한국인, 중국인, 혹은 그들의 후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Sansom은 좀 더 정직하게, “그들은 모두 백제에서 건너온 아야 씨족의 후손들이었다”라고 말 했어야 했다.<sup>40</sup>

### 광개토왕 비문: 한반도에서 싸우는 야마도 병사들

백제 조정은 호무다를 처음에는 신생 제후국의 왕으로 취급한 것 같다.<sup>41</sup> 근구수의 아들인 진사왕(辰斯王 r.385-92)은 특히 호무다를 아래 사람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

<sup>39</sup> 推古 三年 高麗僧慧慈歸化則皇太子師之 是歲百濟僧慧聰來之 此兩僧弘演佛教並爲三寶之棟梁 (NII: 175)

推古 十年 百濟僧觀勒來之 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并遁甲方術之書也 十月高麗僧僧隆雲聰共來歸 (NII: 179)

<sup>40</sup> 推古 十六年 以小野臣...爲大使...福利爲通事 副于唐客而遣之... 是時 遣於唐國 學生倭漢直福因 奈羅譯語惠明 高向漢人玄理 新漢人大罔 學問僧新漢人日文 南淵漢人請安 志賀漢人惠隱 新漢人廣濟等 并八人也 (NII: 193)

<sup>41</sup> 중국 정사 백제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백제는 대왕-소왕 제도를 택해, 많은 왕족들에게 좌현왕, 우현왕 등의 왕위를 부여했었다.



이다. 일본서기는 진사왕이 무례한 짓을 했기에 호무다가 392년에 4명의 장군을 백제로 파견하여 엄하게 질책하였다고 말한다. 호무다는 또한 397년(혹은 396년)에도 근구수왕의 손자인 아신왕(阿莘王 r.392-405)의 무례를 심하게 꾸짖었다 한다.<sup>42</sup> 야마도 왕국을 세운 호무다와 백제의 근구수왕(r.375-84)은 나이 차이는 있었겠지만 같은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근구수 왕의 아래 세대인 젊은 백제 왕들이 보인 무례한 태도를 호무다가 용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는 진사왕이 장군 진가모를 시켜 고구려 도곤성을 빼앗고, 200명을 포로로 잡는 390년 9월까지 고구려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광개토 대왕(r.391-413)이 등장하자 전장에서의 처지는 완전히 역전되었다.<sup>43</sup> 아신왕은 백제의 생존을 위해, 아직 정복자의 기세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생 야마도 왕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함을 느꼈다. 아신왕은, 양국 조정 사이에 불필요하게 야기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군사적 동맹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397년에 태자 전지(腆支)를 호무다(오오진) 조정으로 보낸다.<sup>44</sup> 광개토왕 비문은 아신왕과 태자 전지의 노력이 성공했음을 알게 해준다. 즉, 고구려 군대가 392년과 396년에는 백제를 초토화시켰으나, 그로부터 수년 후인 400년과 404년에는 용감한 야마도 병사들이 백제 편에서 고구려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sup>45</sup>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옛날부터 백제는 야마도 조정이 보낸 활과 말을 받아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왔고, 백제가 한반도 내부 전쟁에 야마도 병사들을 데려다 쓰는 관행은 6세기까지 지속된 것 같다. 일본서기는 백제의 성명왕이 544년에 킨메이 왕에

<sup>42</sup> 應神 八年 百濟人來朝... 百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侵...東韓之地 (NI: 367)

<sup>43</sup>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辰斯王 六年 王命達率眞嘉謨 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人

<sup>44</sup> 應神 八年 是以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NI: 367)

<sup>45</sup> 廣開土王碑文 九年己亥 百 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而 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稱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十年庚子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至 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城□城 倭寇大潰 城內十九 盡拒隨倭... 殘倭遺逃...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廣開土境 好太王□□□□ 寐錦□家僕勾請 □□□朝貢...十四年甲辰 而倭不執 侵入帶方界 和通殘兵 □石城□連船□□□ 王躬率□討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게 임나를 구원하고자 군대를 요청한 기록과, 백제가 어떤 가야 연맹국과 신라 사이의 국경에 6개의 성을 축조하기 위해 3,000명의 야마도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기록이 있다. 일본서기에는 또, 백제가 547년에 야마도 조정에 사신을 보내 원군(救軍)을 요청한 기록과, 548년에 야마도 조정이 370명을 백제로 보내 득이신(得爾辛) 성의 축조를 도왔다는 기록이 있다. 아울러 553년에 “성명 미상의 내신 한 명에게 두 필의 말과 배 두 척, 활 50개와 화살 50묶음을 주어 백제 조정에 선물로 보내면서 이르기를 ‘왕이 요청한 군대를 우리가 보내주겠다’”는 기록도 있다.

성명 왕이 553년에 킨메이 왕에게 보내는 서신 내용을 보면, “바다 건너 우리나라는 활과 말이 매우 부족하여,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천황으로부터 활과 말을 제공받아 강력한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왔다. 나는 삼가 야마도 조정이 대량의 활과 말을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다. 554년의 서신 내용을 보면, “백제는 ...를 보내 (성명 미상의) 내신에게 이르기를 ... ‘우리가 지금 막 들으니 킨메이 왕의 명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지는 군대가 북 큐슈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니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 올해의 전투는 지난 번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군대를 정월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자 내신은 ‘1,000명의 조군(助軍)과 100필의 말, 40척의 배가 보내지고 있다’고 대답한다.”<sup>46</sup>

### 우지-가바네(氏姓) 제도와 베(部) 조직

주서 이역전의 백제전에 의하면, 백제 조정은 궁중 내부의 업무를 보는 내관 12개 부와 조정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외관 10개 부를 가지고 있었다. 내관 12개 부는, 왕의 명령을 받아 출납을 관장하는 전내부, 곡식을 관장하는 곡부, 육류를 다루는 육부, 궁내의 창고 업무를 담당하는 내략부, 궁 밖의 창고를 관리하는 외략부, 왕실의 말을 관리하는 마부, 칼등 무기를 제조하는 도부, 불교 사찰을 관리하는 공덕부, 약을 만들고

<sup>46</sup> 十四年 春正月 百濟 遣...等 乞軍兵 六月 遣內臣 闕名 使於百濟 仍賜良馬二匹 同船二隻 弓五十張 箭五十具 勅云 所請軍者 隨王所須... 又復海表諸國 甚乏弓馬 自古迄今 受之天皇 以御強敵 伏願天慈 多賜弓馬 (NII: 103-7)

十五年 百濟遣中部木笏施德文次 前部施 德曰佐分屋等於筑紫 諮內臣...等曰 ...方聞 奉可畏 天皇之詔 來詣筑紫 看送賜軍 聞之歡喜 無能比者 此年之役 甚危於前 願遣賜軍 使逮正月 於是 內臣...答報曰 卽令遣助軍數一千 馬一百匹 船四十隻 (NII: 109)

치료를 담당하는 약부, 토목공사를 관장하는 목부, 예의와 의전관계를 담당하는 법부, 후궁들을 뒷바라지하는 후궁부, 등 이다. 외관 10개 부는,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사군부, 교육과 의전관계를 담당하는 사도부, 토목과 재정경제를 담당하는 사공부, 형벌 관계를 담당하는 사구부, 호구를 파악하는 점구부, 외교를 담당하는 객부, 관리의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외사부, 직물을 제조하는 주부, 천문과 점술을 담당하는 일관부, 상공업을 관장하는 도시부, 등 이다.<sup>47</sup>

야마도 왕국은 우지-가바네(氏姓)라는 정치-사회 조직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야마도 지배 씨족들은, 확대된 유사-씨족 단위로서 많은 수의 “우지(氏)”라고 부르는 집단들을 만들었다. 각 씨족의 거주지 혹은 직종을 지칭하는 명칭 자체가 각 씨족의 명칭이 되었다. “베”는 가바네(姓) 칭호를 부여 받은 우지 우두머리 지휘아래 야마도 조정에 봉사하는 세습적 직능 집단이다. 가바네 칭호는 각 씨족 수장의 야마토 조정 내의 세습적인 지위를 나타낸다. 우지나 베나 모두 순수한 혈연 관계만으로 뭉친 집단은 아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구성원도 포함해서 실용적으로 구성된 기능적 집단으로서, 확대된 의미의 “집안”같은 인간적인 울타리를 뜻한다.

우지가미(氏上)라고 부르는 가바네 칭호를 가진 씨족의 수장들은, 베 구성원의 통솔을 위임 받아, 신생 왕국의 통치자를 위해, 온갖 생산-행정 활동을 수행하며 조정에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베(部)라는 집단은, 농사를 짓고, 관개-수리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확장하고, 물고기를 잡고, 직물을 짜고, 각종 토기를 만들고, 점을 치고, 수공업품을 만들고, 철제 무기를 만들었다. 각 우지는 상이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 받았다.<sup>48</sup>

<sup>47</sup> 周書 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上 百濟 官無常員 各有部司 分掌衆務 內官有前內部 穀部 肉部 內掠部 外掠部 馬部 刀部 功德部 藥部 木部 法部 後官部 外官有司軍部 司徒部 司空部 司寇部 點口部 客部 外舍部 網部 日官部 都市部 都下有萬家 分爲五部 曰上部 前部 中部 下部 後部 統兵五百人 Hsiao(1978, 38)에 의하면, 중국의 관료적 중앙집권 제국을 대표하는 진-한 조정의 여러 고위 관직들은 애초에 궁중의 필요에서 형성된 것이다. 재상이란 지위도 왕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두머리 자리에서 유래한 것이며, 소위 아홉 대신들 이라는 존재도 왕족의 가사를 돌보던 요원들로부터 유래 한 것이다.

<sup>48</sup> 베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출납 회계처리 같은 특수한 행정 서비스를 야마도 조정에 제공했다. Hirano (1977)에 의하면, “일본의 통일 국가는 ‘베’라는 공동체 조직을 바탕으로 5 세기 후반에 형성된 것이다. 베 조직은 원시 일본 국가의 기본적 사회-정치 구조를 대표한다. 정상에는, 강력한 씨족 수장들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 한 야마도 최고 통치자가 군림을 하고, 그 하부에서는 수많은 베 서비스 집단이 노동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6 세기에 들어와서는 전통적 지방 씨족의 베를 환수해 왕실 직속의 농업 베가 만들어 졌다. 왕실에 예속된 반조(伴造)나 우지가미는 모두

Inoue(1977)는, “우지”라는 낱말은 부계 집단을 뜻하는, 한국어의 “을,” 몽골어의 “우룩”에서 유래했으며, “부(部)”라는 한자의 사용은 백제 조정의 12개 부 제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sup>49</sup> Kiley(1983)은 좀더 구체적이다: “정치적 관할을 베로 나눈 것이나 마찬가지로, 가바네 칭호의 사용도 백제로부터 전해져 채택된 것이다. 베라는 조직 자체가 우지라는 제도의 출발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이카(大化) 가이신(改新) 이전 시기에 백성을 통제하는 근본적 수단은 베 조직이었다. 베의 발전은 백제의 베 제도의 자극과 격려를 받은 것이다. 베 제도는 국왕의 가사를 관장하는 내관과 조정의 일반 국사를 관장하는 외관으로 구분되어 제각기 창고-회계 등 재정 부서가 있었다. 이 구분은 또 하나의 백제 제도의 모방이었다. 내관과 외관을 구분 함으로서, 국정 운영을 위한 순수한 정치 부서의 발전 여지를 제공했다.”<sup>50</sup>

베는 백제의 부 제도를 본받아, 백제로부터 도래한 사람들에 의해 최초로 조직되기 시작한 서비스 집단이었다. 베는 왕실에 소속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각 우지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 베를 관할하는 우지 수장들은 야마도 조정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지라는 존재는 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

우지비도(氏人)와 베민(部民, 部曲)들을 이끌고 생산 활동을 했다. 반조는, 조정의 관리로서, 도모(伴)라고 하는 세습적 집단과 도모베(品部)라는 직업 베민을 거느리고, 제사 등 특정 임무를 수행했다. 지방에서는, 토착 세력가 혹은 조정에서 파견된 사람이 국조(쿠니노 미야츠코 國造)가 되어 우지를 구성하였다.

<sup>49</sup> Farris (1998, 101)는, 쫓다 소끼치가 이미 “베”라는 낱말이 백제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고 말한다. 언어학적으로 어원을 따져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인간적인 “을(傭)” 혹은 “우리” 속에 “무리(衆)”를 지어 함께 생활을 함으로서 “우리(我)”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우지” 혹은 “우디”인 것이다.

<sup>50</sup> 가바네는 흔히 씨족 성의 끝부분을 구성한다. (가바네가 없는 씨족의 성도 있다.) Barnes (1988, 29)는, “몇 개의 대표적 가바네 명칭은 한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들은 아마 조직적으로 위계를 정하는 가바네 발상을 비롯한 다른 여러 혁신적 발상이 도입되는 5 세기 초에 전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가바네 지위를 보유한 우지 수장들 자신이 한국 사람 후손인 것이다.” Aoki (1974, 41)에 의하면, “호무다(오오진)는 자신의 부하들을 날로 커가는 삼각주의 촌장들 가운데서 뽑았는데, 호무다는 그들에게 한국 말로 촌장을 의미하는 (분명한 한국 어원을 가진) 무라지(連)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무라지 지위는 주요 비왕족 우지 우두머리를 위해 만든 것이고, 그들 직종의 명칭을 사용했다. 오미 지위는 왕족 중 좀 낮은 위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주로 해당 지역 명칭을 사용한다. 대신(大旻)-대련(大連) 등은 최 고위 대신 직이었다.

우지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베는, 야마도 왕조가 이름만의 최고 지배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절대적인 통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직이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유랴쿠는 모든 하다 씨족을 취합해서 하다의 주공(秦酒公)에게 주었다. 주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180여 종의 뛰어난 베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대궐 마당을 다 채울 정도로 고급 비단을 만들어 쌓아 놓았다. 유랴쿠는 하다 씨족을 전국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세금으로 각종 물자를 생산하여 바치게 하였다.<sup>51</sup> 하다 씨족과 아야 씨족은, 시조 오오진 치세 때, 백제로부터 엄청난 수가 한꺼번에 떼를 지어 건너온 양대 씨족이다. 하다와 아야 씨족은, 양잠, 직조, 철 제품 생산, 농지 개간뿐 아니라, 각종 행정 업무, 대외적 외교 활동, 정부 창고 관리, 회계 장부 처리, 세금 징수, 정부 지출, 등등 업무의 부여 받아 수행했다. 이 두 씨족의 활약은 야마도 조정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했다.

일본서기 기록을 보면 유랴쿠(하쯔세)는 사냥을 상당히 즐겼던 것 같다. [463년 어느 날] 하쯔세는 요시노 궁으로 행차를 해, 그 인근 지역에서 수렵을 즐겼다. 그 날도 여러 개의 산을 오르고, 넓은 들을 달리며 수많은 새와 짐승들을 잡았다.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 쉬면서 군신들에게, “사냥의 즐거움은 조리사로 하여금 육회를 만들게 하는데 있다. 누가 한번 스스로 회를 떠보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군신들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쯔세는 크게 노해 마부를 베어 죽였다. 이 사건을 일어나자, 왕후는 주방에서 육회를 잘 만드는 자신의 조리사 3인을 왕에게 바쳐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조리하는 시시히토(肉人) 베를 만들도록 했다. 그 후, 오호야마도(大倭) 국조 아고코가 사람 하나를 보내 시시히토 베에 추가시켰다. 그러자 전국의 오미, 무라지, 반조, 국조들 역시 사람들을 보내 추가시켰다.<sup>52</sup> 이 기록을 보면, (왕실 직속의) 베라는 것을 단 세

<sup>51</sup> 雄略 十五年 秦民分散臣連等 各隨欲駟使 勿委秦造 由是 秦造酒甚以爲憂 而仕於天皇 天皇愛寵之 詔聚秦民 賜於秦酒公 公仍領率百八十種勝 奉獻庸調絹縑 充積朝廷 因賜姓曰禹豆麻佐 一云 禹豆母利麻佐 皆盈積之貌也 雄略 十六年... 詔宜桑國縣殖桑 又散遷秦民 使獻庸調 (NI: 495)

<sup>52</sup> 雄略 二年...命虞人縱獵... 獮什七八 每獵大獲 鳥獸將盡 遂旋憩乎林泉...問群臣曰 獵場之樂 使膳夫割鮮 何與自割 群臣忽莫能對 於是 天皇大怒 拔刀斬御者大津馬飼 是日 車駕至自吉野宮 國內居民 咸皆振怖 由是...皇太后知斯詔情 奉慰天皇曰 群臣不悟陛下因遊獵場 置肉人部...以我爲初 膳臣長野 能作肉膾 願以此貢...皇太后觀天皇悅...曰 我之廚人...以此二人 請將加貢 爲肉人部 自茲以後 大倭國 造吾子籠宿禰 貢狹穗子島別 爲肉人部 臣連伴造 國造又隨續貢 (NI: 463-5)

명의 사람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야마도 왕국의 베(部) 제도는, 백제의 부(部) 제도를,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임기 응변적으로, 아주 융통성 있고 유연한 형태로 모방을 한 것이다. 관료화 된 백제의 부 조직에 비교 해 보면, 거의 전혀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신축성 있게 그때 그때 발생하는 필요에 따라 조직이 되어, 부여 받은 특정 활동에 종사했다.<sup>53</sup>

Ōbayashi (1985)는, “베 제도 성숙의 중요한 요인은, 알타이 초원문화에서 유래하는 새로운 친족 개념의 일본열도 유입이었다. 이 과정은 부여-고구려 문화의 한반도 남부 진입과 함께 진행이 된 것이다. 5세기 고분들에서 발굴되는 번쩍이는 금 장식들은 한반도를 통한 알타이 초원 왕족문화의 (일본열도) 상륙을 시사한다. 고구려-백제와 유사한 고대 일본의 왕실 중심 설화와 의식들은, 동일한 연결 고리의 다른 하나의 연결점을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일단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야마도 왕조의 권위가 공고해지고, 중앙과 지방의 토착 세력이 왕권에 도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자, 베를 소유하며 관리하는 씨족의 수장이라는 특정 세습 권력이, 중앙 집권의 강화를 저해하는, 가장 눈에 거슬리는 장애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관료적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던 중앙정부의 핵심 지배층은, 645년에 실시된 다이카(大化) 대변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가이신(改新)은, 대부분의 베와 사유민을, 국가의 백성 즉 공민(公民)의 존재로 만들려고 했다. 정부 행정을 중앙집권적으로 재정비하고, 대규모 씨족의 수장이 장악해 온 농민과 부민들을, 조정의 직접 관할 아래 두려고 했다. 우지 집단은 점차로, 씨족의 수장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관료제도 하의 높은 관직을 가진 수장 밑에 (확대된 인간적 울타리 속에 한 개의 가족을 이루는 형태로) 그 존재를 유지하게 되었다.

647년, 7색(色) 13계(階)의 관위(冠位) 제도를 제정하였다. 조정 내의 지위를 나타내는 세습적인 가바네 칭호는 처음부터 씨족과 연계되어있었다. 하지만 관위는 개개인에게 주어 관료적인 귀족 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관위는 가바

<sup>53</sup> 此之御世 定賜海部 山部 山守部 伊勢部也 亦作劔池 (K: 243)

應神 五年 秋八月 令諸國 定海人及山守部 (NI: 365)

雄略 二年 是月 置史戶 河上舍人部 (NI: 465)

394 년 가을 8 월, 호무다는 영을 내려, 아마 베, 야마 베(山部), 야마모리 베, 이세 베(伊勢部)를 정해서 만들도록 했다. 특히, 모든 고을마다, 고기잡이를 담당하는 아마(海人) 베와 사냥과 채취를 담당하는 야마모리(山守) 베를 만들도록 명했다. [463 년] 후미히토(史戶) 베와 카하카미의 토네리(舍人) 베를 설치했다. Hirano (KEJ, 1983: 147) 참조.

네를 대체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병행되었다. 관위제도라는 것은 일찍이 스이코 여왕 재위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었고, 후에 덴지왕의 재위 기간 중에 본격적으로 확대 수정되었다. 하지만 이 관위제도를 진정한 의미의 율령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그저 고구려와 백제의 계급 제도를 모방한 제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임나 일본부 (미마나 일본부) 이야기: 부자/형제/부부 관계

일본서기는 한자로 임나(任那)라 써놓고 미마나(彌摩那)라고 읽는데, 때로는 가야(伽倻) 연맹 전체를 의미하고, 때로는 임나 왕이 다스리는 임나 국을 지칭하고, 때로는 임나 안에 야마도의 관리와 군대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특정 지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미마나 일본부, 미마나 대신(집사), 미마나의 야마도 관가” 등등의 표현만을 본다면, 임나 혹은 가야연맹 전체가 정말 야마도 왕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서기에는, 임나 왕, 탁순 왕, 가라 왕, 안라 왕, 고차 한기, 자타 한기, 졸마 한기, 사이기 한기, 산반하 한기 등의 기록도 나타난다. 이러한 칭호들의 존재는 가야 연맹의 어느 구성원도, 그 어느 누구의 식민지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예컨대, 일본서기는 케이타이(繼體 r.507-31) 때, 임나왕 기능말다 간기(任那王 己能 末多干岐)가 야마도 조정에 왔다고 말한다.<sup>54</sup>

저명한 일본 경제학자 모리시마(1982: 21-30)는 느닷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370년경에 일본은 한반도의 남단을 점령하였었다. 이 일본 영토는 미마나라고 불렸다. 당시 일본은 백제와 신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들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 이 모리시마 얘기는 그가 어렸을 때 배운 명치시대 풍의 역사 교과서 내용을 희미한 기억으로 더듬어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Kuno(1937: 193, 234-42)는 「일본이 한국을 통치 할 권한은 일본이 “미마나”라는 보호령을 창설할 때부터 생긴 것이다. 7세기 이전까지 일본과 한반도 남부 왕국들 사

<sup>54</sup> 雄略 七年 新羅王...乃使人於任那王曰...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任那王勸...往救新羅 (NI: 479)

欽明 二年 夏四月 安羅次早岐...加羅上首位...卒麻早岐...多羅下早岐...斯二岐早岐... 子他早岐等與任那 日本部吉備臣往赴百濟 俱聽詔書 (NI: 68-71)

繼體 二十三年 四月 任那王己能末多干岐 來朝...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置內官家 不棄本土 因封其地 良有以也 今新羅達元所賜封限 數越境以來侵 請...救助臣國 (NII: 37-41)



이에 일종의 종주국-조공국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널리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을 때, 일본의 “역사와 지리”라는 잡지는 특집을 발행했고, 주필은 권두언에서, “이 합병이라는 위업은 일본이 7세기에 잃었던 한반도 지배권의 회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아직 까지도 고대 일본이 4세기 후반 (예컨대, 370년) 이후부터 200년 이상 한반도 남부에 “미마나”라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위 “임나 일본부” 설을 주장한다.

동이전에 기록된 12개의 변한 (성읍) 국가들 중에는 미오야마(미마?)와 구야(가야?) 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변한 성읍국가들이 가야 연맹으로 진화하는데, 중국 정사에는 가야 연맹 전체가 종종 “임나, 가라”라는 두 개의 대표적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송서(宋書)에는 야마도 지배자들이 말하는 7개국 명단에 “임나, 가라”가 오래 전에 사라진 “마한, 진한”과 더불어 “야마도(倭), 백제, 신라” 3개국과 동격으로 나열되어 있다. 삼국사기뿐만이 아니라 광개토 대왕의 비문에서도 “임나, 가라”가 한 쌍을 이루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옛 변한이 임나 (소)연맹과 가라 (소)연맹으로 발전하고, 이 두 개의 (소)연맹이 가야연맹 전체를 구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55</sup>

일본서기는, 대가야의 왕자가 일본열도에 건너왔다가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스이닌(垂仁) 천황이 대가야 왕자에게 자신의 아버지 이름인 미마끼(스진 崇神)를 따라서 대가야 국명을 바꾸라고 권했기 때문에 대가야가 미마나로 불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가미(1964)는 「미마」라는 “명칭의 유래는 일본서기의 기록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스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미마」는 스진이 큐슈로 건너오기 전에 살았던 미마-나의 지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sup>56</sup>

일본서기(N2: 42-47) 541년 조에는, 백제 성명왕(聖明王)이 임나의 한기(旱岐)와

<sup>55</sup>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三十 韓傳 韓 在帶方之南...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馬韓在西有...伯濟國...凡五十餘國...弁辰亦十二國...彌烏邪馬國...狗邪國...斯盧國

宋書 卷九十七 列傳 夷蠻 倭國 興死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廣開土王碑文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通...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sup>56</sup> 垂仁 二年 是歲 任那人...欲歸于國... 一云 御間城天皇之世 額有角人乘一船泊于... 意富加羅國王之子..是時 遇天皇崩後 留之仕活目天皇 逮于三年 天皇問...欲歸汝國耶...改汝本國名追負御間城天皇 御名便爲汝國名 ...返于本土 故號其國謂彌摩那國 其是之緣也 (NI: 257-259)



그 일행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긴메이(欽明) 왕은 임나[가야연맹]를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임나[가야연맹]는 신라에게 속았다. 록기탄(喙己呑)은 신라에게 시달리다 망했으며, 남가라는 너무 작아서 멸망했다. 탁순은 상하가 모두 이중 거래를 하다가 멸망했다. 이제 나는 신라가 빼앗아 간 지역들을 신라로부터 구해 내어 [가야연맹 내의] 제 위치로 복원시키고자 한다. 야마도 관리들은 신라의 국경과 너무 가까운 미마나 땅에 오래 동안 거주하면서 임나[가야연맹]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sup>57</sup>

일본서기 562년 조는, “임나[가야연맹]가 붕괴되었다. 총칭 임나(總言任那 가야연맹)는 가라(加羅), 안라(安羅), 사이기(斯二岐), 다라(多羅), 졸마(卒麻), 고차(古嗟), 자타(子他), 산반하(散半下), 걸찬(乞滄), 임예(稔禮) 등 모두 10개국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sup>58</sup> 이 [가야연맹] 명단에, (임나왕이 다스리는 임나국 뿐 아니라) 일본서기가 이미 6세기 초반에 신라한테 먹혔다고 말하는 탁순, 록기탄, 남가라도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백제와 야마도 왕국의 지배자들은 가야 연맹의 재건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다.

일본서기에는 긴메이(531-71)가 임종 시, 태자에게 임나[가야연맹]를 회복시켜 예전처럼 부부(夫婦)와 같은 관계를 회복하라고 유언을 하는 기록이 있다.<sup>59</sup> 일본 역사학자들은 긴메이가 말하는 이 “부부 관계”를 “종주국과 식민지 관계”로 해석을 한다.

일본서기(N2: 44-45)는 백제 성명왕(523-54)이 가야 사절단에게 하는 말을 기록한다: “과거, 우리 선조 근초고, 근구수 왕은 당시 가야의 한기들과 처음으로 친선 관계를 맺었으며, 이제는 형제처럼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네들을 마치 나의 ‘아들이나 동생’처럼 대해주고 자네들도 나를 ‘아버지나 형’처럼 대해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

<sup>57</sup> 欽明 二年 四月 百濟聖明王謂 任那早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 全以復建任那 ...其喙己呑居加羅與新羅境際 而被連年攻敗 任那無能救援 由是見亡 其南加羅 蕞爾狹小 不能卒備 不知所託 由是見亡 其卓淳 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二年七月 拔取新羅所折之國南加 羅喙己呑等 還屬本貫 還實任那...又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 新羅情狀 亦是所知 毒害任那 (NII: 69-75)

<sup>58</sup> 欽明 二十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 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嗟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滄國 稔禮國 合十國 (NII: 119)

<sup>59</sup> 欽明 三十二年 夏四月 天皇寢疾不豫 皇太子向外不在 驛馬召到 引入臥內 執其手詔曰 朕疾甚 以後事屬汝 汝須打新羅 死無恨之 封建任那 更造夫婦 惟如舊日 (NII: 131)

실하게 이웃들과의 우호 친선관계를 유지해왔고, 항상 동맹국들을 정직하게 대해왔다.”<sup>60</sup>

일본서기를 보면, 임나 지역 내에서 야마도의 존재와 임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임나 사신(任那使)이 임나 사람(任那人)과 야마도 사람(日本人)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말을 했다」; 「야마도의 고위 관리(日本卿)들이 미마나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임나와 친한 척 가장한다(僞和任那)」; 「성명왕이 임나 집사(任那執事)와 야마도 집사(日本府執事)를 함께 불렀다」; 「일본부 대신과 임나 한기(任那早岐)들에게」; 「임나와 일본부가 함께(任那與日本府) 백제에서 회동」; 「임나 지역의 야마도 현읍」; 등등이다. 한편, 「임나의 하한(下韓)의 백제의 군령과 성주」라는 구절은 임나 내의 백제 사람들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다.<sup>61</sup>

일본서기 오오진 7년(396) 조는 “고구려인, 백제인, 임나인, 신라인이 모두 조정 에 왔다”고 말한다. 이 문장에서의 임나는, 식민지적 성격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과 동격으로, 가야연맹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sup>62</sup>

야마도 지배자들은, 전통적으로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반도 남단에 지속적인 「왕래를 위한 항구시설(津路, 往還路驛)」들을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했

<sup>60</sup> 欽明 二年 夏四月 百濟聖明王謂任那早岐等言...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早岐等 初遣使相 通厚結親好 以爲子弟 (NII: 69-71)

欽明 二年 七月 百濟本記云...乃謂任那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與故早岐等始約和親 式爲兄弟 於是 我以汝爲子弟 汝以我爲父兄...自茲以降 勤修隣好 遂敦與國 (NII: 73-77)

<sup>61</sup> 繼體 二十四年 秋九月 任那使奏云...日本人與任那人 頻以兒息諍訟難決 (NII: 43-5)

欽明 二年 秋七月...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僞和任那 如斯感激任那日本府者 (NII: 73-7)

欽明 四年 冬十一月 詔百濟曰...在任那之下韓 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且夫任那者 爲爾國之棟梁 ...爾須早建...聖明王曰 是月乃遣施德高分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NII: 77-79)

欽明 五年 春二月 ...又謂日本府卿任那早岐等曰 夫建任那之國...將出在下韓之百濟郡令城主 唯聞此說 不聞任那與日本府 會於百濟 (NII: 78-83)

欽明 五年 冬十一月...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宜來聽勅...安羅王 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NII: 83-91)

欽明 十三年 夏五月 詔曰 今百濟王 安羅王 加羅王 與日本府臣等 俱遣使奏... (NII: 101-103)

<sup>62</sup> 應神 七年 高麗人 百濟人 任那人 新羅人 並來朝 (NI: 367)

던 것 같다.<sup>63</sup> 일본서기를 보면 야마도 관리들과 군대가 거주하는 항구 시설이 있었고, 미마나(任那) 일본부(日本府) 대신이라 부르는 야마도 관리가 존재했다. 야마도 지배자들은, 가야 연맹국들의 양해 하에, 야마도 사람들을 거주시키면서, 일본열도를 왕래하는 최단 경로상에 항구시설들을 운영했던 것 같다. 일본서기(N2: 17-18)에는, 야마도 왕국과의 왕래를 쉽게 할 수 있는 나루터 하나를 백제가 야마도 조정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사용하려 했더니, 가라왕이 크게 노했다는 기록이 있다.<sup>64</sup>

야마도 지배자들이 백제를 왕래하기에 편한 항구를 확보하려던 노력은, 19세기 말에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200년 이상 식민지로 경영했다는 이야기로 황당하게 과장되었다. 일본 사람들이 미마나(任那) 일본부 라고 부르는 구역의 위상은 1609-1856년 동안 마치 외국인인 자기들 소유지처럼 사용한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商館)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조선조 초기에 한반도 남부 연안에는 왜관(倭館)을 설치한 항구들이 있어, 조선 관리의 감시하에 한정된 구역 내에 일본인들의 거주가 허용되었고, 일본의 배와 화물이 출입을 할 수 있었다. 1474년에 와서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왜인들의 수가 2,000명을 넘었고, 그들은 자주 허용된 구역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경작을 했다.<sup>65</sup>

<sup>63</sup> 神功 攝政五十年 久氐等奏曰...皇太后勅云...增賜多沙城爲往還路驛 (NI: 357)

繼體二十三年 百濟王謂...曰...請以加羅多沙津爲臣...津路 (NII: 39)

<sup>64</sup> 529년, 백제 성명왕은 “야마도 조정으로 가는 우리 사절은 항상 육지의 돌출부(곶)들을 피해가며 풍랑에 시달린다. 그러니 가라 땅의 다사진을 우리가 뱃길의 나루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케이타이 왕은 사람을 보내, 다사진을 백제에 넘겨주려 했다. 그러자 가라 왕이 야마도 사신에게 ‘이 항구는 우리가 사용하는 항구인데, 어찌 본래 책정된 구획을 위배해서 그리 쉽게 이웃 나라에 주어 버리려 하는 거요?’ 라고 따졌다. 그러자 야마도 사신은 물래서기를 보내 그 항구를 백제에 이양했다.” (N2: 17-18)

繼體二十三年 三月 百濟王謂...曰 夫朝貢使者 恒避嶋曲 每苦風波...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 是以...爲請聞奏...是月 遣...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達元所封限地 勅使...等 因斯難以面賜...別遣錄史 果賜扶余 (NII: 39-41)

<sup>65</sup> 조선 조정은 왜인들에게 제한된 교역 특혜를 주었다. 1443 년에, 내이포(제포), 부산포, 염포에 왜인들이 상관과 거주시설을 설치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가 해 주었다. 삼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은 1510 년에 그들을 감시하는 조선 관리와 충돌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왜란이 진압된 후, 삼포(웅천, 동래, 울산)에서의 왜인들의 교역 특권이 박탈되었다. 조선 조정은 1512 년에 다시

Aoki(1974: 50)는 “일본의 국수주의적인 역사가들은 변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아마 정 반대였을 것이다. 오히려 변한 사람들이 북큐슈나 혼슈의 서쪽 끝 지역을 자신들의 추가적인 영토로 간주했을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을 자기들의 친족으로 또 교역 상대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변한의 해변가에 위치한 무역항에는 사무소와 창고 등이 늘어서 있었을 것이다. 더 많은 수의 변한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게 되면서, 일본에 정착한 변한 사람들은 변한 땅의 항구들을 자신들의 교역 기지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 지역이 바로 임나(미마나)로 불려졌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 일본 역사 교과서의 남조선 경영론: 임나 일본부설

일본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소위 「미마나(任那) 일본부 설,」 혹은 좀더 거창한 「야마도 왕국의 남조선 경영론,」 또는 「야마도 왕국, 6세기 전반에 이르러 조선 내의 이권을 상실하다」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은, “가야 연맹국” 전체가 야마도 조정의 직접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다는 인상을 주려 하는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 이외의 어떠한 동아시아 역사책에서도 미마나(任那) 일본부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고사기 역시 미마나 일본부라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다. 일본서기 편찬자들은, 고사기가 편찬 완료된 이후에, 한반도 동남 해안 임나 뱃길 출발점에서 (임나왕과의 양해하에) 항구 시설을 돌보던 (얼마간의 병력을 포함하는) 왜인들의 존재에 “미마나 일본부”라는 거창한 명칭을 부여했던 것이다. 일본서기가 말하고 있는 미마나 일본부란, 「가야연맹 국가들 중의 하나인 임나국 안에, 야마도 조정에서 보낸 관리들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미마나”라고 부르는 특정지역 이었다」고 이해한다면 가장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될 것이다. 야마도 조정은 “미마나 일본부”라는 존재를 야마도 왕국의 내관가(內官家)라고 불렀다.

“임나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야 연맹 국가들의 왕들을 등장시키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일본 사학자들이 당시 야마도 조정이 임나라는 나라 자체를 식민지로 다스렸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가야연맹 국가들을 모두 지배했고, 급기야 한반도 남부 전체를 수백 년 간 식민지로 경영을 했다는 등, 것처럼 황당한 형태의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할 뿐이다. 일본서기를 조금만

---

유화정책으로 전환하여, 요즘의 부산의 동래지역에 위치한 부산포 (1678 년에 阜梁으로 이전) 한군데에서만 왜인들이 교역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Lee(1984: 191-2) 참조.

읽어 보면 그 허구성이 금방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주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사회에서 계속되는지, 그 나름대로 사회 병리학 적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아스카를 어째서 한자로 비조(飛鳥)라고 쓰는가?

야마도 왕국이 수립되고 710년에 나라(奈良)로 천도를 하기 이전 까지를 아스카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아스카라 하면 나라 분지의 동남부에 있는 다카이치(高市) 군의 아스카 촌 일대를 말한다. 일본서기 사이메이 여왕 4년 조에는, 아스카를 한자의 음을 빌어 아수개(阿須箇)라고 표기했다. 그런데 어째서 고사기는 아스카를 한자로 비조(飛鳥)라고 썼을 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가지 가능한 해답을 제시해 보려 한다.

백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도래 했을 때, 그 고장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을 아스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뜻을 물으니, “날이 썬 무렵(明日),” 즉 날이 새어서 밝아 올 무렵이라 했다. 그러자 백제 사람들은, 한자의 뜻을 단순히 음으로 읽는 방식으로, “날”비(飛) 자와 “새”조(鳥) 자를 써서 아스카 라는 지명의 뜻을 표기한 것이다. 마치 “열”개(開) 자와 “쇠”금(金) 자를 써서 “열쇠”를 표기한 방식과 같다. 요즘 사람이 “개금”이라는 한자를 보면 역시 어리둥절할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아스카의 뜻을, 한문의 뜻을 살려 명일향(明日香) 이라고 표기했다. 한국식으로 한자를 혼독한 “비조”나, 중국식으로 한문의 뜻을 낸 “명일향”이나, 모두 “아스카”의 뜻(즉, 날이 썬 무렵)을 표기한 것인데, 이 표기들을 그냥 모두 옛 관습대로 아스카라고 읽게 된 것이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다.<sup>66</sup>

동아시아 역사: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 2012 홍원탁 (洪元卓)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HongWontack.com>)

<sup>66</sup> 신라 사람들은 수(水)자를 써놓고 그대로 “물”이라고 읽어 버렸다. 한자 음 그 자체(音讀) 혹은 한자의 뜻 그 자체(訓讀)를 단순히 음으로 만 사용을 하는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은 “매홀”이라는 자신들의 고유 어휘를, 한자의 음독으로 매홀(買忽)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고, 혼독으로 수성(水城)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다음 그냥 매홀 이라고 읽기도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고구려 지명들이 음독과 혼독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는 덕분에, 언어 학자들이 부여-고구려 계통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한자의 음 자체를 그대로 읽고, 한문으로서의 그 뜻이 무엇 인가 만을 생각해 보면 된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덕분에, 우리 고유의 어휘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買忽 같이) 음독 하거나 (水城 같이) 혼독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